# 민주, 나흘째 장외투쟁…박대통령 회담 제안

## 국정원 국조 파행·개혁 등 여론전 강화

## 靑선 '묵묵부답'…與도 "대표회담 먼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파행과 관련해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은 3~4일 민주당은 촛불집회 참석과 '역전토크' 개최 등으로 대국민 여론전에 박차를 가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우선 지난 3일 오후 6시 청계광장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대중집회를 열고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이날 개최한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촉구 국민보고대회'에는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 127명 가운데 112명이 참석해 모처럼 당의 결속을 과시했다. 하지만, 문재인 의원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대표는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사과할 일이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솔직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부끄러움이 없다면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국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의원들은 흰 셔츠에 청바지를 맞춰 입고 나와 '아침이슬', '상록수' 등을 불렀고, 무대 앞에 앉아 있던 의원들은 어깨동무를 하고 제창하며 보조를 맞춰 정치집회가 아닌 '문화제'의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어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 주최로 같은 장소에서 열린 5차 '국민 촛불대회'에도 참여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의원들은 촛불을 들고 대열에 합류했다.

김 대표는 특히 이날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및 국회 국정조사 파행 등으로 얽힌 현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박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엄중한 상황에 처한 정국을 풀기 위해선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상황타개를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집권세력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누가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끝낼 조건으로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국민과 국회에 의한 국정원 전면 개혁 ▲박 대통령이 작년 12월16일 TV토론에서 '댓글 증거 없다'고 사실과 달리 단언한 것과 정국 악화를 방관해온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 등을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 나흘째인 4일 오전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당 최고위원회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장단'간 연석회의를 열어 시민단체와의 연대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서울역 대합실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주제로 '민주당 역전토크'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과 시민들은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한편, 김 대표의 영수회담 제의에 대해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도 "이번 사안은 '여야 대표회담'을 비롯해 여야 협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 김 대표는 황우여 대표와 먼저 협상을 하는 게 순서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한길 민주당 대표(왼쪽 다섯번째)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 역전토크에서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열흘 남은 국정원 국조, 파국이냐 재개냐

## 증인채택 막판 조율 실패…오늘 국정원 기관보고

파행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4일 막판 물밑 협상에 나섰지만 핵심 쟁점인 증인채택 합의에 실패하면서 대치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원 국조 활동 시한(15일)이 불과 11일 남아 있고, 내주에라도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1주일 전에 증인을 채택해야 하는 만큼 5일이 국조 정상화를 위한 1차 시한으로 지적되는 상황이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측은 이날 "우리는 협상할 의향이 있고 지속 접촉하고 있다"면서 "저쪽(민주당)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오늘이 사실상 현시점에서 상황(국조 정상화)을 해결할 수 있는 최종시점"이라면서 "(새 누리다 측과) 보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낮부터 서울시내 모처에서 만나 막판 타결을 모색했고 그 결과 여야는 오후 늦게 국회에서 '3+3 회동'을 했다.

그러나 그동안 팽팽히 맞서왔던 핵심 쟁점인 증인채택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애초 여야 합의로 예정됐던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한 기관보고는 오전 10시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증인채택 문제나 증인에 대한 청문회는 내일 국정원 기관보고를 받으면서 양당 간사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이른바 '원판김세'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새누리당은 김 의원과 권 대사에 대한 증인채택 요구는 정치공세라면서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北 관계자 만나 정부 생각 설명"

## 박지원, 방북 승인 요청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2일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을 만나 우리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을 설명할 기회를 허락해 달라"며 정부에 방북승인을 요청했다.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에 가서 그런 분들을 만나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입장과 국제적 흐름을 직접 설명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박 의원은 "특사는 박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고 정치적 운명을 함께할 분이 하는 것이 좋다"며 "특사도 좋지만 정부에서 저를 특사로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논의하는 '마지막 회담'을 하자는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반응하지 않는 것을 두고 박 의원은 "'승전기념일' 등 국내 행사가 많은데다 우리 정부의 태도를 관망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4일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마지막 실무회담 제의와 관련해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북한에 책임있는 행동과 회담 수용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정원 안보활동 연 4000억 예비비 지출 국회 통제 추진"

## 장병완 의원 법안 발의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4일 국가정보원이 안전보장활동에 사용하는 예비비를 국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이날 서울시청 앞 국민운동본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민주주의회복과 국정원개혁 국민운동본부장단 연석회의에서 "해마다 국정원은 안전보장활동에 대한 경비 약 4000억원을 국회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예비비로 지출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눈 먼 예산인 예비비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따라서 통제 없이 사용되는 예비비 편성을 막기 위해 '예산회계특례법 폐지안'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의장은 이어 최근 새누리당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대기업 부동산 양도세 감면을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과 '빅딜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우리당은 전월세자의 보호와 취득세 인하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 그 자체로써 해결해야 할 일이지 거래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집단소송제 모든 민사 소송 적용 필요"

## 우윤근 의원 법안 발의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4일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는 집단소송제의 범위를 모든 민사 소송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소비자분쟁, 환경·공해 분쟁 등 집단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임에도 현재 집단소송 관련 법안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전부"라며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50명 이상의 분쟁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 한 사람이 대표로 소송을 맡고 판결의 효력을 모든 피해자들이 공유하도록 해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송 대표자는 분쟁에 대해 조사하거나 상대방의 답변과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명하지 않으면 대표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법원은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에게 이를 알려 개별 피해자들이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전남 '국정원 규탄' 잇단 촛불집회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사건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가 광주와 목포 등 광주·전남 곳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광주 진보연대는 2일 오후 7시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주째 금요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대선개입 국정원 규탄', '대통령 사과', '책임자 처벌' 등을 외치며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릴 촛불문화제 참가를 독려했다.

진보연대 관계자는 "오는 9일 서울서 열리는 촛불집회 참가자를 모집해 상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목포, 광양, 나주, 화순, 장흥, 해남 등에서도 국정원 규탄 집회와 문화제가 시민 수십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3년 **10월 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3.3㎡ 당 임대가 **200만원**
분양가 **25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P×200만원 = **임대가 3억7400만원 분양가 4억6750만원**

| | | | |
|---|---|---|---|
| 지상5층 | 501호 내과<br>502호 치과 | 지상6층 | 601호 안과<br>602호 이비인후과 |
| 지상7층 | 701호 성형외과<br>702호 산부인과 | 지상8층 | 801호 피부, 비뇨기과<br>802호 영상의학과 |
| 지상9층 | 901호 한의원<br>902호 소아, 청소년과 | 지상10층 | 1001호 재활의학과<br>1002호 가정의학과 |
| 지상11층 | 1101호 신경외과<br>1102호 정신의학과 | 지상12층 | 1201호 정형외과<br>1202호 항문외과 |

Good Morning Medical Town
굿모닝메디컬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 · 분양 문의 : 062)252-0099

**시네마 (CGV) 계약완료! 골프장 계약완료!**
**볼링장 계약완료! 수영장 계약완료!**

**파격적인 임대가 & 분양가**

| | | | |
|---|---|---|---|
| 지하2층~지하1층 | 수영장(사우나,헬스) 계약완료 | 지상2층 | PC방 203P |
| 지하1층 |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 지상2층 | 레스토카페 166P |
| 지상1층 |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P | 지상2층 | 볼링장 854P |
| 지상1층 | 지상1층 휴대폰매장 22P | 지상2층 | 한정식 387P |
| 지상1층 | 미용실 23P | 지상 2층~3층 | 골프장 906P |
| 지상1층 | 약국 69P | 지상3층 | 일식 387P |
| 지상1층 | 베스킨라빈스 44P | 지상 3층~4층 | 영화관 분양 및 CGV계약완료 |
| 지상1층 | 롯데리아(맥도널드), 드롭탑 540P | 지상4층 | 패밀리레스토랑 387P |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렌터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